

사상 첫 200서브에이스 ‘문성민의 날’

〈현대캐피탈〉

190번째 출전경기서 역대 1호 대기록
선두 현대캐피탈, 3-0 대한항공 제압



중반전 선두다
팀으로 관심을 모
은 대결에서 웃은
팀은 현대캐피탈이었다. 현대캐피탈은
21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V리
그 3라운드 대한항공전에서 세트스코
어 3-0(25-19 25-22 25-20) 완승을 거
두고 승점 3을 추가해 선두를 유지했
다. 전날까지 대한항공과 나란히 승점
32를 기록했던 현대캐피탈은 이날 승리
로 선두경쟁에서 한발 앞서나갔다.

말 그대로 문성민(30)의 날이었다.
문성민은 이날 뜻 깊은 기록과 함께 팀
승리를 동시에 달성하며 에이스의 자격
을 스스로 입증했다. 전날까지 통산
200서브 달성에 단 하나만을 남겨놓았
던 그는 1세트 8-4로 앞선 상황에서 송
곳 같은 서브 공격을 성공시켜 대기록
의 주인공이 됐다. V리그 13시즌 역사
상 누구도 밟지 못했던 역대 1호 기록이
다. 자신의 190번째 출전경기를 스스로
빛낸 문성민은 이후에도 매서운 서브
스파이크로 대한항공의 전의를 상실시
켰다.

적재적소에 터진 문성민의 서브에
이스에 웃음 지은 이는 현대캐피탈 최태
웅 감독이었다. 사실 최 감독은 이날 경
기 전 서브의 중요성을 강조한 터였다.
현대캐피탈은 올 시즌 대한항공과 앞선
2경기에서 번번이 무기력한 패배를 당
했다. 두 번 모두 상대보다 10개가량 많
은 범실이 발목을 잡았다. 서브 범실 역
시 패인 중 하나. 그럼에도 최 감독은
선수들에게 강력한 서브를 넣을 것을
주문했다. 기선제압에서 밀리면 이날
역시 첫 승이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흥국생명 이재영(왼쪽)이 21일 화성실내체육
관에서 열린 IBK기업은행과 경기에서 상대
블로킹을 피해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이재영은 19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세트스코
어 3-0 완승을 이끌었다.

화성 |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사령탑의 주문은 코트 위에서 그대로
실현됐다. 현대캐피탈은 이날 초반부터
여러 차례 서브에이스를 성공시키며 경
기를 쉽게 풀어나갔다. 1세트와 2세트
현대캐피탈이 서브로 청진 점수만 7점.
대한항공이 단 1개의 서브 득점에 그친
것과는 대비됐다.

3세트는 순조롭지 못했다. 현대캐피
탈은 세트 초반 대한항공에 리드를 내
주며 흔들렸다. 그러나 11-11 동점 상
황에서 톤 벤 랭크벨트(32)의 배어택 공
격으로 리드를 되찾은 뒤 더 이상 추격
을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문성민(18점)
과 톤(14점)이 끝까지 버틴 현대캐피탈
은 3세트마저 잡아내고 선두행진에 가
속도를 냈다.

한편 화성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부 경
기에선 흥국생명이 IBK기업은행을 세
트스코어 3-0(31-29 25-17 25-20)으로
제압하고 10승 고지를 선점했다. 이재
영(19점)과 타비 러브(18점) 쌍포를 앞
세운 흥국생명은 단독 선두(승점 29)를
유지한 반면, IBK기업은행은 4연패에
빠져 3위(승점 26)에 머물렀다.

천안 | 고훈준 기자 shutout@donga.com



에이스의 위용 현대캐피탈 문성민이 21일 홈에서 열린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 강 서브를 넣
고 있다.

천안 |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차상현감독 리더십에 웃는 GS

훈련 중 선수와 함께 뛰며 솔선수범
확실한 동기부여·격없는 소통 앞장
황민경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령탑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최근에는 ‘오빠 리더십’, ‘어
머니 리더십’, ‘형님 리더십’ 등의 애칭
도 등장했다. GS칼텍스 차상현(42) 신
임 감독에게 ‘어떤 리더십의 소유자인
가’라고 묻자 “굳이 말하자면 솔선수범
이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선수들보다
부지런해야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코트
에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
명이 뒤따랐다.

차 감독은 준비된 지도자로 꼽힌다.
2007년 국군체육부대(상무) 코치로 지
도자생활을 시작했고, 2009년에는 남자
배구대표팀 감독대행을 맡았다. 2011~
2014년 GS칼텍스의 수석코치를 지내
며 이선구 전 감독과 선수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다. 정식감독으로 부임한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선수단 파
악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유다. 차 감
독도 “선수단 파악은 전혀 문제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GS칼텍스 구단관계자는 “선수들이 감
독님을 정말 잘 따른다”고 귀띔했다. 차
감독이 언급한 ‘솔선수범 리더십’이 가
장 큰 이유다. 감독이 먼저 움직이니 선
수들이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차태원
수석코치가 떠난 자리를 채우지 못한
탓에 훈련 스테프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지만, 차 감독은 “공은 내가 때리면
된다”며 호탕하게 웃었다. 황민경은 “감
독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선수들과 함
께 뛰었다. 훈련 시간에는 직접 공을 쳐주
신다. 선수들이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
다”고 했다.

소통에도 능하다. 레프트였던 표승
주의 포지션을 센터로 바꾸는 과정에서
확실한 동기부여를 해준 것이 한 단면



GS칼텍스 차상현 감독(왼쪽)은 ‘솔선수범 리
더십’의 소유자다. 선수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훈련시간에는 직접 공을 때리며 선
수들을 돕기도 한다. 선수들의 마음을 여는
소통에도 능하다는 평가이다.

김천 |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이다. 요구와 제안은 엄연히 다른데, 차
감독은 “경기에 많이 나가고 싶지 않
나”는 제안으로 표승주의 마음을 움직
였다. 표승주는 “감독님께서 ‘포지션을
바꾸고 많이 뛰는 것이 낫지 않냐’고 하
셨다. 내가 뭐가 할 수 있다고 평가해 주
신 것이다. 팀 사정상 내가 레프트보다
는 센터로 뛰는 것이 맞다. 팀이 잘돼
야 나도 좋으니 무조건 열심히 해야 한
다”고 밝혔다. 황민경도 “감독님은 훈
련할 때 확실하게 하고, 운동이 끝난 뒤에
는 선수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신다”고
했다.

GS칼텍스는 20일 김천 도로공사전
을 3-0 완승으로 장식하며 4연패를 끊
었다. 22일까지 5위(5승9패·승점 14)에
머물러 있지만, 분위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차 감독의 데뷔 첫 승이라 의
미가 컸다. 차 감독은 “선수들의 동기부
여를 위해 자주 대화할 생각이다. 소통
이 최선이다. 선수들에게도 ‘감독실 문
은 항상 열려있다’고 했다. 아직 찾아온
선수는 없는데, 열린 마음으로 팀을 이
끌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필리핀 복싱 영웅’ 파퀴아오, 내일 한국온다

자선바자회·사인회 등 일정 소화

필리핀의 ‘복싱 영웅’ 매니 파퀴아오
(38)가 성탄절 연휴를 이용해 한국을
찾는다. 생애 첫 한국 방문이다.

파퀴아오는 23일 새벽 인천국제공
항을 통해 한국땅을 밟는다. 파퀴아오

란 이름은 국내 팬들에게도 이미 익숙
하다. 1995년 프로무대 데뷔 이후 1998
년 WBC 플라이급 타이틀을 거머쥔
뒤 각 계급을 휩쓸며 세계 최초로 8계
급 챔피언에 올랐다. 날쌔 움직임을
물론 사우스포의 장점을 살린 공격이
최대 무기다. 이와 동시에 파퀴아오는

모국인 필리핀에서 국민적 인기를 등
에 업고 하원의원에 이어 최근 상원의
원에 오르기도 했다. 최근엔 은퇴를 번
복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5월 플로리드 메이웨더 주니어
(39·미국)와 ‘세기의 대결’을 펼친 뒤
올해 4월 공식 은퇴를 선언했지만, 7개

월 뒤 이를 번복했다. 지난달 열린 북
귀전에서 제스 바르가스(27·미국)를 상
대해 판정승을 거뒀다.

한국 방문은 3박4일의 일정이다. 이
번 방한행사를 담당한 최경호 버팔로
프로모션 본부장에 따르면, 파퀴아오
는 24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 더케
이호텔에서 열리는 자선바자회에 참
가한다. 자신이 직접 사용했던 글러브
와 스파이크 유니폼 등 100여점의 애
장품이 판매대상이다.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
부할 계획이다. 바자회 기간에는 팬미
팅과 팬사인회도 함께 열린다. 바자회
가 끝나면 짧은 자유시간도 예정돼 있
다. 사실 이번 방한은 파퀴아오의 가
족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한국에서 보
내고 싶어해 성사됐다. 파퀴아오와 그
의 가족들은 국내 한 스키장에서 연휴
마지막 날을 보낸 뒤 26일 다시 필리
핀으로 돌아간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94. 제22회 스위스 제네바
세계 신기술 발명품 대회 (동메달)

KBS1 생로병 사가백일

변경삼 (98)

3월9일 8시 50분 KBS 2TV **비타민**
위대한 발상 변경삼 회장 방송출연

10월 8일 KBS 1TV 22시 방영
창생메디칼 변경삼 회장 “생로병사의 비밀” 방송출연

SBS 400.11 가자 2010년 1월 18일 12시 30분 방영

- 제조원 : 창생메디칼
- 본 사 : 02-469-6455
- 핸드폰 : 010-9828-8789
-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17길 14, 303호 (성수동2가)
- 메 일 : sookapr@naver.com

성기동맥혈류증진기

남성(性)운동기구 의료기기 100% 환불제

30일 사용동안에 효과에 만족하지 않으면 이유 없이 100% 환불을 보장하여 드립니다.
100% 환불제를 보장하지 못하는 남성(性)기구를 어떻게 믿고 구입하시겠습니까?

광고심의필
2007-GN1-03-0023

“작은”

이 특허의 원리는 전립선의 문제는 물론 힘이 없고 빠르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진4개국 발명특허품! “미국 특허상표국(United State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책
임자는 V.S.T 창생메디칼 제품에 대하여, 새롭고 유용한 발명품의 특허신청을 받았다.” 본 발명
은 음경동맥혈류증진기구에 관한 것이며, 전기로 음경근의 확장 및 수축운동을 실행하는 전기를
경동맥혈류기구는 해면체의 혈류이동을 촉진시켜 줄아진 남자들의 해면체 혈관을 회복시킨다.

발명특허원리 : 스위치 한번만 누르면 단 3분(180초)에 100번 이상의 강력하고 정확한 5mm 운동이 전 자동으로 이뤄지고
씩 빠져나오는 남성(性)운동기술로 국내와 미국과 독일과 일본 등의 선진국들에서 발명특허를 획득하고, 제22회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 신기술대전에 입상하였으며, 청와대에 초대되어 대통령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듣고, 한 자리에서
30년 이상을 같이 한 전화번호를 사용하면서 한 제품만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세계적 발명특허품을 완성시킨 창생메디칼입니다.

창생메디칼은 약이나 식품이나 다른 물건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속이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Japanese)창생메디칼 제품 판매소
JAPANESE : www.tao-it.co.jp
東京都中央区入船2-4-4, 今村B/D302
Tel : 81-3-3523-1239
심의번호 2010-GN1-13-0062

미국식약청 FDA등록번호: 9088839, FDA의료기기 등록번호: 876 5020
국제제품질인증시스템 EN ISO 13485:2003 CERTIFICATE No. "CERTIFICATE No.07 0019 S.J"
제22회 스위스제네바 세계 신기술대전 입상 창생메디칼 080-765-4555

국내특허 미국특허 독일특허 일본특허 국제제품질인증 FDA등록

일산 031-975-1221

• 한국발명특허 : 제0430620 • 일본特許 第 : 413 92 889 • 미국발명특허 : No7, 118, 527, B2호 • 독일발명특허 : Nr.103 92 886
• 국제제품질인증시스템 ENISO 2003-2005 / 예금주 창생메디칼 국민은행 : 90233312333 농협 : 02303300-08 www.vstkorea.com

창생메디칼
CHANG SAENG MEDICAL SINCE 1972.2.1

1588-5812